

교 회 목 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종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주간 종현회 THE WEEKLY CHŎ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조광현 편집: 양재홍

남아시아를 향한 복음의 역사와 구호의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행 10:2)



지난 해 12월 26일에 일어난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남 아시아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자 수를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 현장을 보면서 우리들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피해를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구

제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해 여름 방글라데시 수해 때에도 방글라데시 대사에 직접 수재의 연금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는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에 직접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외선부에서 스리랑카 팀에게 예배하고 있는 세 형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자재적으로 성금을 모았으며, 교회 차원에서도 구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이번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열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말씀(금요전례) - 전국 복음

제9장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인가? (3)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이 복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사명이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인류 역사의 목적과 그 의미를 확인하여 주는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철학자들은 역사를 하나님의 계속되는 줄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역사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져 가는 소용돌이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종국적인 의미는 성경 속에 있는 인간 역사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때가 차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육체를 따라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우리 주님께서 수천하신 날로부터 영광으로 재림하실 그 날까지, 이 두 시간 사이에 이것은 역사의 종국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신 그대로 지나간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신성한 목적은 한국 복음의 역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목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교회의 선교 사역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 역사의 책을 본다면 아마도 거기에는 서양사, 동양사 또는 인류 문명의 발전 같은 서적은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만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목적을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 책임을 우리 같은 사람들, 곧 구속받은 죄인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 세대는 두 개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 악의 세력과 천국의 능력이다. 또한 성경은 말세에 일어날 악한 일을 경고하고 있다(마태복음 3:1). 사실상 지금까지 공화한 것들도 이것을 설명해 주었다. 악의 세력이 대적인 천국을 패배하고 반파하고 중보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끝이 가까이를수록 더 심하게 저항하고 싸울 것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주 6일에서 주 5일로 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로관련 법규에 따라 원래는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위임목사님의 사랑과 결단으로 미리 시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의 마음과 열심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더욱 열심히 뛰어드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주간종현>에 실릴 광고의 마감 시간이 주일이나 늦게도 화요일 오전까지 사무실에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여서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던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만이라도 주하나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10:42).

복음의 나팔! 복음의 증인!

2005년도 단기선교를 위한 제2차 CMTC 훈련이 오늘 개강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하여서 철저한 훈련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주일(16일)에도 두 번째 CMTC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9일) CMTC 강의 안내

제1강	선교의 성경적 기초	(오후 6:10~7:00)	갈릴리움
제2강	종현교회 비전과 선교정책	(오후 7:10~7:40)	갈릴리움
	전도특강	(오후 7:40~8:10)	갈릴리움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해서 이 세상을 사단과 마귀의 손에 내어준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천국은 이미 이 세대, 현 세대 속으로 침입하여 들어와 있다. 따라서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더 악이 성행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아가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그 때에 마지막이 올 것이다. 따라서 이 복음전파의 사명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 우리들은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해서 천국을 만들 것이라는 막대한 희망을 가진 낙관자도 아니요 또 이 세대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세력 앞에서 우리의 사역의 힘이 없다고 비관적으로 넘어지는 자들도 아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을 대적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세계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나아가야 한다. 즉 최후의 승리가 우리 사역의 끝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까?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마치는 그 때이다. 이 세대가 언제 끝날 것인가? 온 세상이 복음화된다. “주의 임하리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마 24:3).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그렇다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아끼어서 안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로 재림할 때까지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권세는 지금도 예수님께 속한 것이 다. 사단은 패배를 당했고 묶여져 있다. 죽음도 정복되었고 죄도 끊겼으며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속하였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 마칠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통치하시며 이 지구상에서 그의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 안에서 그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계신다. 우리가 사역하는 자 마칠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의 왕국을 영광 중에 세우실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는 단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려 함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함이다(베포후 3:12).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이상으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마칩니다.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For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bringing salvation to all men."

(Titus 2:11)

The appearance of God's grace is an amazing miracle. People cannot only see it, but also can actually experience it. God's grace brings salvation to all people, which means everyone can take it. It is not specialized for a particular group or individual, but generalized for all human being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This is the gift of God. Do you understand what the grace of God means? The grace of God is the Lord Jesus Christ. Do you know who rebels, curses, and opposes God? Do you know who sins against God, and lives an ungodly life? Do you know who is lonely, empty, and powerless? Do you know who lacks love and is in need? Do you know who is without purpose and meaning?

In our world, there are Christians teaching others that if you live a good life, if you do many good things, then salvation can be yours. They think you can earn salvation. This is not true. Humans are unable to save themselves. There is no amount of money, good deeds, or honor to do this job. Only God can save humans through His Son, His gift, Jesus Christ. God's grace, the Lord Jesus Christ, reaches down to those who have rejected God by doing their own things and living their own ways. His grace reaches down to those who ignore and neglect God, who pay little to no attention to what God says. His grace, the gift of His Son to this world, is not deserved. There is no one, dead or alive, who deserves God's grace. No one deserves the favor of salvation that is in Christ Jesus. God's grace is not merited. This is an important point for three very specific reasons.

First, all humans come short of God's glory in that we sin. Romans 3:23 clearly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Sin makes it impossible to reach God. For instance, if you fly from Seoul to New York, you will probably travel over fifteen hours on an airplane. This is a great distance, but that same airplane cannot come close to arriving in heaven. It is the same with human beings. Isaiah 53:6 says,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Isaiah 64:6 further says, "For all of us have become like one who is unclean, and all our righteous deeds are like a filthy garment; and all of us wither like a leaf, and our iniquities, like the wind, take us away." My friend, there is not even one righteous man in the whole world, not even one worthy of a moment of recognition. No one seeks God, no one understands God, and all the ways of men apart from Jesus are worthless.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Sin turns our mouths into poison through bitterness, cursing, and angry words. Sin makes our feet run toward ruin and misery. Sin covers the way of peace, and the fear of God, which is why sinners, human beings, cannot reach God's grace alone. Until the problem of sin is resolved, no one can reach God's grace.

Second, death cannot reach God's glory. God is eternal; we are not. God's nature is eternity. Our nature is short. All humans must confront death. Everyone has to go there. We all have to go through the terrible, agonizing experience of death. Romans 5:12 says, "Therefore, just as through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If you die, how can you go to eternal heaven? You need eternal life. Romans 6:23 says,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Hebrews 9:27 says, "And inasmuch a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Death brings judgment, not heaven. 1 Peter 1:24 says, "For all flesh is like grass, and all its glory like the flower of grass.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 falls off." This is human life. Psalm 89:48 asks, "What man can live and not see death? Can he deliver his soul from the power of Sheol?" No one controls death, but God. No one can defeat death, but God. "All go to the same place. All came from the dust and all return to the dust" (Eccl. 3:20).

Third, we come short of God's glory in that we have violated the law of heaven, and therefore are doomed to the prison and judgment of hell. Humans are destined for hell, unless the grace of God saves us. When we die we do not cease to exist. We exist forever. The bare fact that we come short of God's glory makes us short of heaven. We are not perfect; therefore, we are not fit to live in a perfect place, like heaven. We are condemned and judged to live outside of heaven, away from God's presence in a place called hell. There, we must always remember why. If we chose to live without God in this present world, then we condemn ourselves to live without God in the next world. If we reject this privilege of living with God in this world, then we reject the right to live with God in heaven. Matthew 10:28 says, "Do not fear those who kill the body but are unable to kill the soul; but rather fear Him who is able to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The Lord will say, "Depart from Me, accursed ones, into the eternal fire which has been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to all humans who rejected His gift. When the Lord Jesus reveals Himself from heaven with His mighty angels in flaming fire, He will be "dealing out retribution to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to those who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2 Thes. 1:8).

God's grace is the Gospel, the good news of the Lord Jesus Christ who brings salvation to all people. This is God's great gift, His Son, who delivers us from sin, death, and hell. There is no excuse. David the adulterer and murderer and Paul the murderer, received God's grace. At this very moment, God's grace is here in this beautiful sanctuary, ready for you to take. He is knocking at your heart's door. Now is the time to take it. Your flesh has the chance to see the salvation of God (see Lk. 3:6). God promises that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see Acts 2:21). "For the Scripture says,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 For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reek; for the same Lord is Lord of all, abounding in riches for all who call on Him; for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Rm. 10:11-13). Amen.

As we begin the year 2005, I hope that every member of our church has selected God's grace. I do not want one, single person who has heard this message today to experience eternal death because of their sin. All you have to do is call Jesus, and confess your sin to Him because He died for you. He will have an eternal home made ready just for you. If you are short, if you cannot reach the glory of God, you will have a terrible, terrible curse. Please take this great opportunity, which is the grace of God. It is so simple, all you have to do is open your mouth and confess that you are a sinner in need of salvation from your sins. Pray, "Lord come to me, I need your grace." 

다움 주일 설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딤후 2:11)



김성완 목사

놀라운 기적의 은혜

우리에게 배후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요 3:1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외면하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을 믿었고 방해를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죄하며 불경건한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의롭고 거룩한지 무한하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사랑에 굶주려 있으며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목독고 의의도 없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선한 삶을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값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 선행, 병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하며 자기 방식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또는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산 자와 죽은 자를 통틀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와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에는 값없이 주신 선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다음의 세 가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첫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뉴욕으로 갈 경우 여러분은 열다섯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평강하면 거리가 짧고 그 길이 먼 거지로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도 천국에는 가지 못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가 53장 6절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갈에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야 64장 6절을 말합니다. “내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배함이 있사오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뒤져도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정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모든 길은 단지 무익한 뿐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입은, 찢는 말과 저주와 분노에 찬 말을 통해 독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발은 멸망과 파멸의 길로만 갈 뿐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죄인들은 곧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둘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에게 이르렀나니.”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죽음을 피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우리를 심판할 뿐,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정말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시편 89편 48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죽음을 다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전 3:20).

영영한 불에

셋째, 우리는 천국의 율법을 범했고 그 결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처럼 완전한 곳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곧 천국 밖에서 살도록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했는지 그 이유를 항상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겠으며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는 셈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특권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특권을 거부하는 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자신의 선물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마 25:41b). 주 예수님이 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살후 1:8)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계획입니다. 간음자로 살인자였던 다윗도, 잔인한 박해자였던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은혜를 받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마 22:28)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눅 3:36 참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1-13).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2005년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자기의 첫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찾고 그 분께 모든 죄를 회개면 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고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만 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오사옵소서. 저에게는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장로칼럼

장로칼럼

신령한 예배를 위한
영적 찬양대

이 훈 (선양·재정위원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2005년에도 충헌교회 위에 5대 목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증거하여 삼위 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05년을 허락하신 이유를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며,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다가온다는 영적인 표적을 보여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말 구유까지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입술을 열어 삼위 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 충헌교회의 5대 목표인 "신령한 예배"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 신령한 찬송!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소 5장 19절과 20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말씀처럼 신령한 찬양을 예수님께 드리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령한 예배의 찬양을 드리는 데, 선별된 위치에 있는 찬양대원들과 연주대원들은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입술을 열어 전에 먼저 무릎 꿇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십자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영적인 찬양의 도구들이 되려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을 위해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위임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매 주일 2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예배 시작 15분 전에 찬양이나 연주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순서를 담당하는 봉사자들은 몇 개월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먼저 찬양과 연주하는 곡 속에 들어가서 찬양할 곡과 가사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되어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 전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오로지 삼위 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신령한 예배를 준비하는 산 제사의 도구가 되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으로 늘어난 은혜를 받아 5대 목표를 기쁨으로 담당하는 십자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찬양위원회의 8개의 찬양대와 5개의 오케스트라 및 2개의 연주대로 조직되어 있고, 전체 약 1,320명의 대원이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감독, 전임지휘자, 전임독창자가 있습니다. 이들 찬양 전임자들은 전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 음악만을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찬양 전임자들은 예배를 위한 찬양대 지휘 및 연습은 물론 예배 전 찬양, 헌금송, 금요 찬양집회 찬양 담당자의 영적·음악적 지도, 정기 특별 찬양 등의 순서를 준비함으로써 위임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합당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늘 기도로 준비하며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오로지 십자가 복음 즉 "날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육에 메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진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뿐이라고 7년 동안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찬양대원들도 십자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의 도구들이 되려고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온 정성과 뜻을 다 바쳐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가슴 깊이 말씀을 새기고, 영적인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삼위 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산 제사가 계속되기를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주님의 은혜! 투명한 재정!

2004년도에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예산보다 더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 예산도 당회의 승인과 함께 공동의회에서 은혜롭게 허락을 받았습니 다. 2005년도에도 책정한 예산을 앞장세우신 장로들과 일꾼들이 책임과 정성을 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며,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되는 일에 사용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리라 확신했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된 예산 가운데 선교와 건물 개보수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먹는 것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해 주셔서 2003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2,027명의 단기 선교사가 세계 열방에 나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지난 해보다 더 많은 단기 선교사와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 방침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더욱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내 세외전 2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 크고 작은 개보수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본당의 음향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작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음향기술자 교제 공사를 하여 본당의 예배 분위기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1교육관과 선교관의 내부를 대폭 수리하였으며, 제1교육관과 선교관 옥상의 콘크리트에 금이 가 조각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크판 공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본당 저하층의 리모델링 공사와 종당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양쪽의 공간을 방으로 사용하는 공사 등 이러한 것들 모두 성도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천국 일꾼을 키우자'는 목표에 따라 작년 전후반기에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등 5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웃 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대내외 주재 사업에도 동참했습니다. 이웃 사랑의 모델이 되고 있는 충헌복지관은 새롭게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나가고 있고 성도들이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의 교회 설립일이 주님 뜻대로 잘 이루어진 것은 온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헌금해 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매 주일 본당 3층 수납처에서 회계부 장로들과 안수집사, 서리집사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무국 실무자들의 정성어린 수고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책정한 예산보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헌신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첫발을 내딛으며

충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하고 있는 송요한 선교사와 가족이 문안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신 교회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매일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현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사역지에서 왜 이 복음이 중요한 지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의 많은 사람들을 정치와 경제의 화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고 확신합니다.

처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경유지에서 약 7시간이 지연되어 피곤한 몸으로 숙소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앞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우리를 파송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속소를 찾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아주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그 후 우리는 교회를 개척할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곳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라는 반으로 갈라지고 정부기관들이 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런 상황 아래 우리를 보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더욱 많이 기도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울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만일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면 하연 이 나라가 유럽 선교와 CIS 선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로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한 국립학교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약 3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첫 장부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천국의 복음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재미있게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현교회를 떠난 지 두 달밖에 안 되지만 벌써 새 해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인 천국 복음을 더 많이 전해주시리라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역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도 4천3백만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영혼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송요한 드림

수요일 예배 메시지

기도의 응답
(단 10: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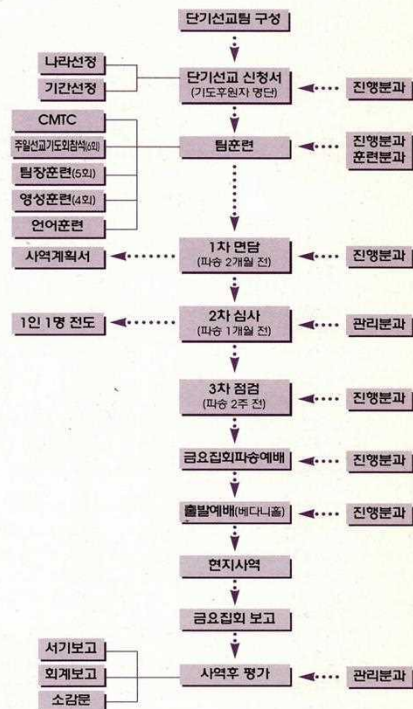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도가 있었다. 다니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 다니엘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모든 일을 마쳤다. 다니엘 10장 23절에 보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이 나온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된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기도를 통해서 전령의 비상을 본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가?

- 다니엘의 기도는 타협하지 않는 기도였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욕심, 계획 자기 자신과의 타협이 전혀 없는 기도를 드렸는데 18. 다니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먹고 누릴 수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았다. 세상의 도전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도했기에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 할 때 육신의 정욕대로 기도해서 사탄에게 빠진 채로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마 26:41). 따라서 우리에게서 바울처럼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죄인 중에 내가 과수나무(골 1:10). 나는 낙담(골 2:15)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는 결국 영면한 몸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마 9:23)처럼 자신을 믿지 말라. 자신의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자. 오직 주님께만 절대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게 도와준다. 법제를 들고 가진 요단강 앞에서 있는 제사장들 보라. 열국의 아바가 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고, 이 후 힘들게 얻은 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요구하는는 말씀과 같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길을 걷게 된다. 타협을 요구하는 악한 영의 속삭임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

-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은사를 받았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드렸는데 21:20.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들은 큰 목표를 놓고

한눈으로 확인하는 "2005년도 단기선교 진행흐름도"

단기선교에 관한 모든 흐름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표가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단기선교의 진행 흐름, 훈련, 준비절차, 및 관련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를 준비하는 팀과 팀원들은 "단기선교 진행흐름도"를 잘 숙지하여 선교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남치는 기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깊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 분과 동행하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충청전도대 3팀은 저하철 삼성역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다. 수요일 오후 삼성역은 통사남측 출입구를 지나가는 사람으로 혼수를 이룬다. 지난 2004년 5월에 충청전도대 교육을 마치고 우리는 새로운 팀을 짜서 삼성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입에서 소리가 떨어지지 않고 입 속에서만 맴돌았습다. 한때 전도하는 흥 집사님이 전해 준 전도지가 집사님 앞에서 찢겨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나 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뱀 먹어 죽냐? 여자가 집안일이나 잘 하지.”라는 말을 들을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습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며 바쁘고 고단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다. 저들이 불행하게 보이자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겨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다. 비단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 불행해져서 용기가 나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어지는 은혜의 자녀가 되세요” 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다. 또한 지난 신년예배 시 찬양대의 찬양과 위임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며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쁘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 5:10-12).

어린 시절에는 교회의 부서에서 장충단공원에 가서 전도하곤 했습다. 그 때 전도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믿음의 동역자로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때는 저급처럼 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다. 이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다. 진정으로 말씀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자임을 실감하게 되니 더욱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습다.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자 온 세상에 전국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한 약속과 말씀에 대한 큰 확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다. 주님의 십자가로 얻게 되는 영생의 길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되어 머지 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후향의 권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날을 고대하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주님이 주셨습다.

매주 수요일 전도 나가기 전 기도회는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다.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기쁨을 주셨습다. 이제 2005년에는 전 전도회원들이 전도를 위해 교회 주변으로 출어질 것입니다. 우리 충청 전도대원들은 온 교회가 전도로 말미암아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을 건지려는 열심으로 가득 차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외치는 전도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임길영 (집사, 16교구)

보혈의 은혜를 담은 그릇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신년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심으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오직 값 없고 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만이 나 자신을 깨끗케 하고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구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의 여부는 예수님에 대한 각 사람의 신앙과 순종 여부에 달린 것이다.

그럼, 주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우선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멀리 하고 주님께 열드린 그릇을 사용하신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하물며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말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은 자들, 즉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은 그릇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요코한 비밀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서 나 자신의 성품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닌,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품을 담은 각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며 주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기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 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승리의 향기를 내는 그릇이다. 우리들은 꽃과 같이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주위 사람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승리의 향기이다. 즉,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수를 나누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야 한다. 성령님이 계심으로 솟아나는 성령님의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할 일이 얻은 귀한 생수를 우리도 값 없이 나누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혼이 쉽 없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함을 말한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계속 새 힘을 얻어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나는 이번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었고, 또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만 속하여야 한다.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김권성 (사랑부 교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저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걱정으로 한숨을 쉴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가운데 세상적인 일들로 힘들어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서 예수님을 제 마음 속에 모시지 않았음을 알았습다. 저는 매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로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다.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예배시간에 떨치지 않고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았습다. 정말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항상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하면서 바라기만 하고,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다. 그런데 중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의 신년 예배설교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다. 그리고 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신년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를 받게 해 주신 것과 제 자신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 배웠습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는 무엇을 담는다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임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제게 주신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임무 중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는 큰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다.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벌써 지진이 일어났습다. 하지만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원망만 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못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이 저희들을 심판하시어 이 땅에 오실 것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제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앞으로 항상 아버지만 의지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감사드리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정말 말로만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항상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주진 (종두2부)

교회탐방 48 전도위원회

십자가 군병 되어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떤 계기를 통해 심기일전할 때가 있다. 그 동안 선교에 비해 침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던 전도위원회가 분연이 일어섰다. 이제 중언교회는 선교와 전도라는 든든한 두축을 잡고 일어버린 영혼을 위해 비상하는 일만 남았다. 일견 비장감조차 느껴지는 전도위원회의 단단한 각오를 듣는다.



전도위원회의 역할은?

전도위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매에는 의욕을 가지고 전도로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조석구 집사, 남대우전도부 차장)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도는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별히 주력하게 된 계기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간접전도를 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직접전도를 한다는 당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과 지금까지 126개의 전도회가 온전히 전도에 전념하지 못 하고 봉사나 구제에 치중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바른 궤도로 진입하는 것이 계기입니다. (이영수 장로, 전도위원회의 위원장)

전도와 선교의 양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갈까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쌓아 온 선교의 담대함을 본받아 전도 역시 내실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실 권사, 중언전도대 실행위원)

전도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교구별 전도구역을 나누어서 그 구역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고 전도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갖고 첫발을 내딛자는 것입니다. (김영수 장로, 전도위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리더들의 역할이 그 일의 성패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분발하는 전도위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전도위원회의 각오를 알고 싶습니다.

후원을 받고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조석구 집사)

당연히 기대하겠습니다. (이연실 권사)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연수 집사, 중언전도대 총무)

훈련과 교육을 통해 무장하고 교회에 순종하겠습니다. (김재명 권사, 전도후원회 실행위원)

전도의 최일선에서 있는 중언의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자세는?

영혼구원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조석구 집사)

담대하십시오. 기도로 용기를 얻고 우선 시작하십시오. (이영수 장로)

전도야 할 시간 내 주십시오. (이연실 권사)

나만 은연방과나니 하는 미안한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연수 집사)

남녀전도회가 꼭 결실을 거둬야겠다는 마음입니다. (김재명 권사)

전도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음외적인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김재명 권사)

복음의 메시지만 사용합니다. (한영덕 권사, 17교구 전도회 연합회장)

일의 추진에는 각오와 더불어 기대도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국내 전도를 통해 그 동안의 십자가 복음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영수 장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를 위해 최선을 다 하면 결국은 나의 영적성장으로 귀결됩니다. 전하는 기쁨을 통해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연실 권사)

성도들이 전도의 몫을 다 하는 동안 주체의식을 회복하리라 기대합니다. (김재명 권사)

선교 위에 또 전도라는 엄숙한 과제를 안은 중언의 십자가 군병들이여! 이제 또 다른 첫발을 내딛어야 할 때다.

12월, 19일(수) 수요부 예배 후에는 여자 전도대원들을 대상으로, 수요부 예배 후에는 남자 전도대원들을 대상으로 전도후원이 있습니다. 이 전도후원에 참석하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편지집)

다음 주일 찬송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미국의 주일학교 사업가 줄리아 해리얼 존스턴(Miss Julia Harriette Johnston, 1849-1919)이 작시하고 다니엘 브링크 타우너(Daniel Brink Townner, 1850-1919)가 1910년에 작곡했다. 이 곡은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의 영감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1절은 죄와 은혜를 크게 대비한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죄가 커면 클수록 그를 용서하는 사랑과 은혜도 더 커져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도 그 용서의 사랑 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

후렴은 다음과 같이 반복할 수 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용서하시고 마옵소서 속을 깨끗히 하신 은혜로다,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보람찬 진리입니다.

2절은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우리의 죄를 씻어 버릴 길이요 믿는 자의 구원이요 올라가는 사다리요, 죄와 죽음의 우리를 위할 때 파산자원을 말한단다.

3절은 이시야 1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께 같을지라도 내가 회개할 것이요 진홍색이 될을지라도 인형같이 되리라"는 약속을 확인하며 오직 십자가 보혈만이 죄를 씻어줄을 전한단다.

4절은 놀랍고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를 담장 반으로라는 관념이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오늘도 유효하고 능력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힘 있게 찬양하는 중언의 성도들이 되자.

(찬양위원회)

세 · 가 · 족 · 을 · 함 · 합 · 나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6	정민욱	19 대북부	김정희(1)	64	김종률	19 청년2부	김한정(13)	82	조이정	19 청년1부	신재호(19)
47	이혜수	1 청년2부	전준옥(1)	65	김영경	17 고등부	김지경(17)	83	이영진	11 청년2부	송기정(6)
48	최주원	19 대북부	이정주(14)	66	권인오	12 청년1부	여정자(12)	84	장은혜	19 청년1부	김선영(1)
49	강현아	19 청년1부		67	서지은	19 고등부	정영희(10)	85	목정호	18 청년2부	하두연(5)
50	이상우	19 대북부	김승연(9)	68	김재은	19 고등부	정영희(10)	86	박미현	19 대북부	이태원(12)
51	최찬진	19 청년1부	김근식(2)	69	김길	19 고등부	홍승연(6)	87	김나리	19 외선부	지유성(12)
52	안상희	2 청년2부		70	서수덕	12 청년2부	김정희(12)	88	최나리	19 외선부	윤숙희(12)
53	정수경	18 청년2부	정영희(12)	71	최대성	19 청년1부	이정애(14)	89	나자	19 외선부	임정재(1)
54	김숙현	2 청년3부	정승국(1)	72	조미라	19 대북부	신수정(15)	90	박성환	2 청년1부	최정일(4)
55	공명우	10 청년2부	홍승연(1)	73	박성호	19 고등부	윤민재(16)	91	이재희	19 청년1부	곽은정(19)
56	김정화	10 소양부	김지애(1)	74	김형진	19 고등부	장진희(1)	92	전미연	19 청년1부	이민영(1)
57	조은솔	19 대북부	김용현(1)	75	김동영	15 청년2부	이성희(14)	93	박미영	14 청년1부	이형남(1)
58	이미용	9 청년2부	김중숙(9)	76	박정희	15 청년2부	신승희(14)	94	김희선	19 청년1부	이민영(1)
59	임예은	11 청년2부		77	홍말미	4 청년3부	손영애(2)	95	김도경	19 청년1부	조재정(19)
60	최경진	9 청년2부	최민욱(9)	78	이미라	19 외선부	이영희(15)	96	서영은	19 청년1부	양병우(19)
61	신은영	9 청년2부	윤현숙(9)	79	열민	19 외선부	전준옥(15)	97	이복자	2 청년1부	구수희(1)
62	이승윤	19 대북부	송정자(14)	80	최서연	19 청년1부	김한정(16)				
63	김창복	8 청년3부	전성옥(8)	81	고선하	19 고등부	이민영(1)				

※ 송진희교회의 한 가족이 회기를 전하는 본은 본은 203호 새가족 등록번호 오시기 바랍니다.

